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지만*, 홍기훈**, 이춘엽**, 김희정***

*부산대학교병원 작업치료사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국문초록 —

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예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 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 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작업치료사, 인권, 인권감수성, 옹호활동

교신저자: 홍기훈(alclstp@hanmail.net)

접수일: 2020년 7월 6일 심사일: 2020년 7월 7일 게재승인일: 2020년 8월 20일

I. 서론

세계작업치료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WFOT)은 UN의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며 (Crawford, Aplin, & Rodger, 2017) ‘모든 사람들은 작업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인권보호 및 보장에 관한 규정을 작업치료사의 역할로 명문화하였다 (Jang, Lee, & Kong, 2017; Schell, Gillen, & Scaffa, 2014).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작업치료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하는 윤리기준을 선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Sagong, Bong., Lee, & Jeon, 2018;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KAOT], 2017). 작업치료 서비스 제공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인권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헌신, 친절함을 기반으로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수행 되는데(Lee & Bang, 2015), 실제 임상현장에서 작업치료사와 클라이언트는 동반자적 관계로 치료 전략을 사용하며 클라이언트-중심 작업치료를 통해 상호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진다(Victoria, 2010). 상호간의 존중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인권적 요소를 발견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감수성(Moon, 2002)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권 감수성은 행동 양상으로 도출되는데, Rest(1986)는 한 사람이 인권에 대해 옹호하는 행동은 단계가 있으며 마지막단계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과 관련된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옹호(Advocacy)의 개념은 최근 개정된 작업치료실행체계(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III; OTPF-III)에서 작업치료 중재 방법 중 하나로써 접근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작업적 정당성을 촉진시키고, 일상적인 삶의 작업에 온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찾고 획득하기 위한 힘을 실어주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2014). Cho(2003)는 여러 옹호의 종류 가운데 옹호의 주체가 전문가인 경우 옹호는 사례옹호, 명분옹호, 정책옹호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작업치료사는 보건의료의 전문가 중 하나로써 작업치료 기반의 이론의 틀(Frame of Reference)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중재 전략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 이 중 옹호하기(Advocating)전략은 의도적 관계성 모델(Intentional Relationship Model; IRM)의 치료적 방법의

하나로써 치료사로서 장애를 환경적인 장벽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직면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장벽에 대응(Taylor & Van, 2013)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임상에서 수행하고 있다. 옹호자의 역할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이용자 입장을 지지하여 권익과 존엄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지지, 대변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기관의 입장에 도전할 목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도록 돕는 것이다(Kim, 2011). 이처럼 인권 및 옹호의 개념은 작업치료와 관련이 있으며,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연구와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작업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KAOT,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이 포함된 에피소드를 제시하여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알아보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Rest(1986)의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4단계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마지막 4단계에서 인내심이나 의지 등이 필요한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에 연관된 성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 및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론적인 인권교육을 벗어나 옹호활동으로 확장하여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작업치료면허를 획득한 자이며,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로 델파이 조사 기법(Delphi Technique)을 차용하여 선정된 설문 문항을 온라인 설문지 URL(Uniform Resource Locator; 파일인식자)를 전송하여 배포 및 수집 하였다. 설문 문항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온라인 설문지에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한 11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야만 재회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 결측값이 없도록 설정하여 116부의 설문지를 모두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3가지 유형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문항, 인권감수성 설문 문항, 옹호활동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 결혼여부, 최종학력, 근무지역, 근무기관, 근무분야, 근무경력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연구도구 설계를 위한 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도구의 전체문항 수행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델파이 조사 기법을 차용하여 작업치료와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에 관한 문항을 작업치료사와 관련이 높은 문항만 선정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 문항 선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패널 선정은 Dalkey, Brown과 Cochran(1969)는 델파이 기법에 필요한 전문가 패널은 최소 1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작업치료와 인권 및 옹호의 개념의 전문성, 성실성, 적절성을 고려하여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작업치료사를 위한 장애인권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임상 작업치료사 3인과 작업치료학 전공 교수 2인으로 총 5명을 델파이 조사 패널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구는 델파이 조사 과정 전체가 아닌 문항선정 방식을 차용하여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델파이 조사 패널의 응답한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도구의 설문지를 자문의뢰서와 설문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설문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교육 자료를 첨부하여 전자메일로 발송하고 다시 수집하였다. 델파이 조사 패널의 설문내용 구성은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10가지와 옹호활동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인권감수성은 국내의 실정에 맞는 인권에 대한 딜레마 상황으로 구성된 총 10가지의 인권감수성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환경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사생활권, 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 노인의 행복추구권(결혼할 권리)으로 구성되

어 있고(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2002), 옹호활동은 사례옹호, 명분옹호, 정책옹호의 개념이 포함된 Jeon(2004)의 옹호활동 연구도구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감수성 에피소드와 옹호활동 문항의 내용 중 작업치료사와 연관이 있는 순으로 빠짐없이 기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수집 결과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10가지의 우선순위 평균은 5.5 표준편차는 2.6 옹호활동 문항의 평균은 8.0 표준편차는 3.2로 나타났다.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각 연구도구의 평균값 이상인 항목들이 모두 선정되었으며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설문 문항은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사생활권 침해, 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 노인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포함한 6가지 에피소드로 총 36문항, 옹호활동 설문 문항은 사례옹호와 명분옹호, 정책옹호의 내용을 포함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며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인권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연관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면서 나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Moon, 2002). 국가인권위원회(NHRCK)의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상황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였다. 상황지각은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이다. 결과지각은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책임지각은 자신과 관련하여 인권과 연관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각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 능력이다(Kang, 2002; NHRCK, 2002). 에피소드는 인권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I번은 상황지각, II번은 결과지각, III번은 책임지각을 알아보기 위한 Likert 5점 척도의 2가지 문항으로 각각 구성된다. 첫 번째 문항은 인권감수성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가치인 비인권평정을 알아보는 문항이고, 두

번째 문항은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인권가치평정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방식은 비인권가치평정 문항에 비해 인권가치평정 문항의 점수가 큰 경우만 점수를 받는다. 반대로 인권가치평정 문항에 비해 비인권가치평정 문항의 점수가 큰 경우는 0점 처리된다. 인권감수성을 알아보는데 어떤 경우라도 비인권가치평정의 경우는 점수화 하지 않고 인권가치평정을 비교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된다. 이처럼 인권감수성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이지만 0점을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각 문항 당 0~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각 에피소드의 문항은 인권감수성의 3가지 개념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에 관한 내용을 각각 포함하기 때문에 한 에피소드 당 총 점수는 0~1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가지 에피소드를 선정하여 구성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인권감수성 총 점수는 0~90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도구의 개발 시 10가지 에피소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6가지 에피소드의 Cronbach's α 값 역시 .88로 나타났다.

3) 옹호활동

인권 관련한 상황에서 옹호활동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 보호하는 행동, 인권침해로 고통당하는 타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말한다(Lee, 2004). 옹호의 주체가 전문가인 경우 옹호는 크게 미시적 차원의 사례옹호와 거시적 차원의 명분옹호, 정책옹호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Cho, 2003). 사례옹호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권익에 맞는 바람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자신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기관이나 사회에 대해 욕구와 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말한다(Jeon, 2004; Delk, 2002). 명분옹호는 일반적으로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나 상황, 문제들을 다루는 옹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Jeon, 2004; Schneider & Lester, 2001). 정책옹호는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시, 자원과 기회가 균등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비교적 취약한 집단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실천으로 정의하였다(Koo, 2005; Jeon, 2004). 옹호활동을 측정하는 연구도구는 Koo(2005), Moon(2017)과 Kim(2019)등 다른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선행연구로 사용된 Jeon(2004)의 옹호활동 연구도구 15 문항 중 선정된 사례옹호, 명분옹호, 정책옹호의 개념을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점방식은 Likert 5점 척도인 1~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점수는 7~3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도구의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6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92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version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파악하였다.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수준과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수준은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변인 중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 ANOVA로 분석 후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에는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 분석하였고,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인권감수성 하위영역 3가지의 개념은 에피소드 당 3가지 개념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측정 가능하므로 각각의 하위영역 개념이 옹호활동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인권감수성 하위 영역 3가지(상황지각, 책임지각, 결과지각)가 각각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별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116명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0명(34.5%), 여성 76명(65.5%)이었고, 연령은 30대가 56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1명(44%), 40대 9명(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80명(69%), 종교는 무교가 51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정도는 전문대학 졸업이 54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대학 졸업 47명(40.5%), 대학원 이상 15명(12.9%) 순

Table 1. General features of clients

Feature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40(34.5)
	Female	76(65.5)
Age (yr)	< 30	51(44)
	30~39	56(48.2)
	40~49	9(7.8)
	≥ 50	0(0)
Status	Married	36(31)
	Unmarried	80(69)
Religion	No religion	51(44)
	Chistian	31(26.7)
	Catholic	14(12.1)
	Buddhist	13(11.2)
	Other	7(6)
Level of education	College	54(46.6)
	University	47(40.5)
	More than masters	15(12.9)
Location	Seoul	31(26.7)
	Kyeonggi Province	27(23.3)
	Gangwon Province	9(7.8)
	Chungcheong Province	7(6)
	Jeolla Province	10(8.6)
	Gyeongsang Province	32(27.6)
Organization type	College/University	4(3.4)
	General Hospital	24(20.7)
	Rehabilitation/Nursing Hospital	65(56)
	Community welfare center	10(8.7)
	Other	13(11.2)
Clinical field	Child	16(13.8)
	Adult	54(46.5)
	Elderly	32(27.6)
	Other	14(12.1)
Clinical experience (yr)	< 3	29(25)
	3~5	33(28.4)
	6~10	42(36.3)
	≥ 11	12(10.3)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경상도가 32명(27.6%), 서울이 31명(26.7%), 경기도가 27명(23.3%)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은 재활/요양병원이 65명(56%)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종합병원이 24명(20.7%), 기타 기관 13명(11.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분야는 성

인치료 담당이 54명(46.5%), 노인치료 담당이 32명(27.6%), 아동치료 담당이 16명(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근무경력은 6~10년 42명(36.3%), 3~5년 33명(28.4%), 3년 미만이 29명(25%), 11년 이상 12명(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에피소드에 따른 인권감수성 및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수준

인권감수성 및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 점이었고, 3가지 하위영역에 따라 인권감수성의 평균은 각각 상황지각에서 23.25 ± 5.62 점, 결과지각에서 22.75 ± 6.54 점, 책임지각에서 23.00 ± 6.54 점이었다.

각 에피소드에 따른 인권감수성 및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의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전체 에피소드 중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12.75 ± 3.21),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12.64 ± 3.20), 노인의 행복추구권(11.54 ± 3.99), 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11.06 ± 4.88), 사생활권 침해(10.72 ± 5.02),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10.27 ± 5.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상황지각이 가장 높은 에피소드는 장애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권 침해 순이었다. 결과지각 가장 높은 에피소드는 노인의 행복추구권,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순이었다. 책임지각은 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Table 4와 같다. 총

Table 2.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by subcategories

Subcategories	<i>M</i> ± <i>SD</i>	Minimum	Maximum	Range
Human Rights sensitivity	69.00 ± 17.67	17	90	0~90
Perception of situation	23.25 ± 5.62	8	30	0~30
Perception of consequences	22.75 ± 6.54	5	30	0~30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23.00 ± 6.54	4	30	0~30

Table 3. Level of Human Rights sensitivity by episodes

Subcategories	Human Rights sensitivity (0~15)	Perception of situation (0~5)	Perception of consequences (0~5)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0~5)
Episode 1. Equal rights	12.75 ± 3.21	4.34 ± 1.36	4.32 ± 1.18	4.10 ± 1.51
Episode 2. Right to education in disabled	12.64 ± 3.20	4.46 ± 1.01	3.95 ± 1.63	4.24 ± 1.35
Episode 3. Privacy right in mental illness	10.27 ± 5.18	3.50 ± 2.01	3.53 ± 2.01	3.24 ± 2.09
Episode 4. Privacy rights	10.72 ± 5.02	3.82 ± 1.70	3.49 ± 2.05	3.41 ± 1.92
Episode 5. Right to personal freedom in disabled	11.06 ± 4.88	3.78 ± 1.89	3.34 ± 2.13	3.94 ± 1.61
Episode 6.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f the elderly	11.54 ± 3.99	3.36 ± 1.90	4.12 ± 1.41	4.06 ± 1.41

9개의 변인 중 연령, 종교, 최종학력, 임상경력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근무지역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은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 및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속하지 않은 기타 기관보다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근무분야에서는 성인, 아동 노인 등 특정한 대상이 아닌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수준은 Table 5이고, 연구대상자인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의 수준은 Table 6과 같다. 일반적 특성인 총 9가지 변인 중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옹호활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지역에 따른 옹호활동은 경상도보다 서울, 경기도에서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른 옹호활동은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재활/요양병원이 옹호활동이 더 높았다. 임상경력의 경우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in Human Rights sensitivity by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i>M</i> ± <i>SD</i>	<i>t</i> / <i>F</i>	<i>p</i>	Scheffe
Gender	Male ^a	61.85 ± 18.62	10.87	.001*	N/A
	Female ^b	72.77 ± 16.02			
Age (yr)	< 30 ^a	69.70 ± 16.30	.52	.593	
	30~39 ^b	69.30 ± 18.89			
	40~49 ^c	63.22 ± 18.29			
Status	Married ^a	61.97 ± 17.91	8.83	.004*	N/A
	Unmarried ^b	72.17 ± 16.72			
Religion	No religion ^a	68.66 ± 17.42	1.38	.245	
	Chistian ^b	66.00 ± 17.86			
	Catholic ^c	70.14 ± 17.63			
	Buddhist ^d	68.69 ± 19.13			
	Other ^e	83.14 ± 13.01			
Level of education	College ^a	71.72 ± 17.91	1.29	.277	
	University ^b	67.21 ± 17.56			
	More than masters ^c	64.86 ± 16.69			
Location	Seoul ^a	75.58 ± 14.69	2.84	.019*	f<a
	Kyeonggi Province ^b	73.22 ± 17.64			
	Gangwon Province ^c	63.33 ± 19.90			
	Chungcheong Province ^d	62.57 ± 17.86			
	Jeolla Province ^e	70.20 ± 20.05			
	Gyeongsang Province ^f	61.71 ± 16.58			
Organization type	College/University ^a	67.50 ± 11.95	5.40	.001*	e<b,c
	General Hospital ^b	62.29 ± 14.72			
	Rehabilitation/Nursing Hospital ^c	73.95 ± 16.77			
	Community welfare center ^d	73.30 ± 11.80			
	Other ^e	53.84 ± 21.20			
Clinical field	Child ^a	71.37 ± 15.92	3.60	.016*	d<c
	Adult ^b	68.64 ± 15.82			
	Elderly ^c	74.00 ± 16.76			
	Other ^d	56.28 ± 23.14			
Clinical experience (yr)	< 3 ^a	62.89 ± 17.19	2.44	.067	
	3~5 ^b	73.78 ± 15.38			
	6~10 ^c	70.76 ± 19.18			
	≥ 11 ^d	64.50 ± 15.84			

**p*<.05

5.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과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 영역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간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관성을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가운데 책임지각이 가장 상관성이

높았고(*r*=.660), 그 다음으로 결과지각(*r*=.615) 순이었으며, 상황지각(*r*=.528)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인권감수성 및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단순 회귀모형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인권감수성은 통계

Table 5. Differences in Advocacy of activities by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i>M</i> ± <i>SD</i>	<i>t</i> / <i>F</i>	<i>p</i>	Scheffe
Gender	Male ^a	3.66 ± 0.79	0.65	.420	N/A
	Female ^b	3.80 ± 1.01			
Age (yr)	< 30 ^a	3.67 ± 0.93	1.63	.217	
	30~39 ^b	3.89 ± 0.95			
	40~49 ^c	3.38 ± 0.82			
Status	Married ^a	3.56 ± 0.83	2.17	.143	N/A
	Unmarried ^b	3.84 ± 0.98			
Religion	No religion ^a	3.63 ± 1.05	2.11	.084	
	Chistian ^b	3.75 ± 0.74			
	Catholic ^c	3.77 ± 0.93			
	Buddhist ^d	3.70 ± 0.78			
	Other ^e	4.71 ± 0.75			
Level of education	College ^a	3.92 ± 1.02	1.95	.154	
	University ^b	3.65 ± 0.87			
	More than masters ^c	3.47 ± 0.73			
Location	Seoul ^a	4.11 ± 0.86	4.52	.004*	f<a,b
	Kyeonggi Province ^b	3.90 ± 1.09			
	Gangwon Province ^c	3.65 ± 0.96			
	Chungcheong Province ^d	3.51 ± 0.72			
	Jeolla Province ^e	4.12 ± 1.02			
	Gyeongsang Province ^f	3.24 ± 0.66			
Organization type	College/University ^a	3.82 ± 0.45	3.45	0.02*	b,e<c
	General Hospital ^b	3.32 ± 0.71			
	Rehabilitation/Nursing Hospital ^c	4.00 ± 1.05			
	Community welfare center ^d	3.52 ± 0.80			
	Other ^e	3.45 ± 0.50			
Clinical field	Child ^a	3.71 ± 1.01	.70	.556	
	Adult ^b	3.66 ± 0.88			
	Elderly ^c	3.97 ± 1.08			
	Other ^d	3.64 ± 0.68			
Clinical experience (yr)	< 3 ^a	3.65 ± 0.75	4.08	.012*	d<b,c
	3~5 ^b	3.83 ± 1.09			
	6~10 ^c	3.95 ± 0.92			
	≥ 11 ^d	3.09 ± 0.70			

**p*<.05

Table 6. Level of Advocacy of activities

Categories	<i>M</i> ± <i>SD</i>	Minimum	Maximum	Range
Advocacy of activities	3.75 ± 0.94	1.43	5.00	0~5

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때 수정된 결정계수 값(Adjusted R²)은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이는 인권감수성이 높을 수록 옹호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이때 인권감수성 변수는

옹호활동에 중간강도 이상의 영향을 보였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모형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subcategorie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advocacy of activities

Subcategories	Advocacy of activities	Perception of situation	Perception of consequences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Advocacy of activities	1			
Perception of situation	.528**	1		
Perception of consequences	.615**	.855**	1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660**	.797**	.855**	1

** $p < .01$

Table 8. The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n advocacy of activitie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andard error	β	t
(constant)***	1.397	.273	-	5.114
HumanRights sensitivity***	.034	.004	.640	8.904
R ²		.410		
Adjusted R ²		.405		
F***		79.288		

*** $p < .001$

Table 9. The effects of subcategorie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n advocacy of activitie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β	t	Tolerance	VIF
(constant)***	1.602	.283		5.655		
Perception of situation	-.020	.023	-.120	-.861	.253	3.946
Perception of consequences	.039	.023	.269	1.652	.186	5.368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076	.020	.525	3.759	.252	3.966
R ²			.448			
Adjusted R ²			.434			
F***			30.354			
Durbin-Watson stat			1.420			

*** $p < .001$

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 < .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책임지각 변수가 높을수록 옹호활동이 증가 하였다. 구체적으로 Table 9의 다중회귀모형에서 책임지각이 옹호활동에 영향을 주었고, 이때 수정된 결정계수 값(Adjusted R²)은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책임지각의 공차한계는 0.1 이상,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수치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고 찰

작업치료 서비스 제공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상호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헌신, 친절함을 기반으로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수행 되는데(Lee & Bang, 2015),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료와 효과적으로 일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abard & Martin, 2003). 그러나 국내에서는 작업치료와 인권의 키워드를 가진 연구는 단 2건이었고, 작업치료와 옹호의 키워드를 가진 연구는 단 1건이었다.

Hong(2018)의 연구에서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을 연구하면서 옹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와 관련이 있는 사례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 수준을 조사하여 상관관계 및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임상에서 작업적 관점으로 인권을 해석하고 치료적 중재방법 중 옹호(Advocacy)를 사용하고 클라이언트의 옹호자의 역할을 하는 작업치료사(AOTA, 2014)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 고취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작업치료와 인권 및 옹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감수성을 알아 본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통된 인권감수성 6가지 에피소드만 추출해 평균값을 비교하여 작업치료 비전공자 및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과 본 연구대상자인 작업치료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작업치료학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도구인 국가인권위원회(NHRCK, 2002)의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로 6가지 에피소드 전체의 평균 7.33점이었다. Jang, Lee와 Kong(2017)의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조사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6가지 에피소드를 추출한 평균점수는 6.33점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6가지 에피소드의 평균점수는 11.49점이었다. 본 연구와 같은 연구대상군인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Hong(2018)의 선행연구의 5가지 에피소드의 평균점수는 11.54점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6가지 에피소드 중 공통된 5가지 에피소드만 추출한 평균점수는 11.24점으로 나타났다. 각 에피소드의 최대 점수인 15점에 더 가까울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이므로 연구대상 중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작업치료학 전공 학생이나 작업치료학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작업치료와 인권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가 작업치료사와 관련 있는 에피소드를 선정하였고, 작업치료사 윤리강령에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작업치료사가 임상현장에서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직종이므로 실제 임상경험이 없는 작업치료학 전공 학생이나 작업치료학 비전공자인 일반인에 비해 작업치료사가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근무지역별 인권감수성은 서울이 경상도 보다 더 높았고, 옹호활동

은 서울, 경기에서 모두 경상도보다 높아 인권감수성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을 동시에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근무지역을 수집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근무지역별 특성에 따른 연구의 축적을 목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향후 작업치료사의 근무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무기관에 따라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선행연구인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에 관한 연구(Hong, 2018)에서도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기관별 인권감수성은 종합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옹호활동은 근무기관에 따라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 대학/종합병원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근무기관 별 차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기타 기관에서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치료사에 비해 Lee(2013)는 대학병원급 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급성기 혹은 짧은 재원기간을 가진 환경을 가진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 비해 이러한 한정적 공간인 의료기관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딜레마를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Kang(2002)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서가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이 기타기관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보다 높은 결과를 가진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이 작업치료사의 근무기관별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Lee(2017)는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필연적으로 매년 부담하는 의료비로 인해 노년 빈곤 및 가족과의 유대감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비생산인구이기 때문에 빈곤지위 이동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대상에 비해 인권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인면서 장애를 수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의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임상경력별 옹호활동은 3~5년차, 6~10년

차 이하가 11년차 이상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알아본 선행연구는 없었고 Moon(2017)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Kim(2019)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을 알아 본 선행연구는 모두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옹호활동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결과 비교는 어려웠다. 국내 작업치료가 병원 중심에서 최근 지역사회로 뻗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기관에 정착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있으므로 작업치료사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업치료사로서의 임상경력 혹은 현재 근무지에서의 임상경력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수준 평균은 상황지각, 책임지각, 결과지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Hong(2018)의 연구에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지만,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지각의 개념이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Rest(1986)의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4단계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최종단계에서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나 의지 등이 필요한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에 관련된 성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옹호활동이 증가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인권감수성 변수는 옹호활동에 중간 강도 이상의 영향을 보여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 하였다. 또한 Kim(2019)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도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 수준은 책임지각, 결과지각, 상황지각 순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는 Moon(2017)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였다. 선행연구는 책임지각, 상황지각, 결과지각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책임지각과 상황지각 변수가 높을수록 옹호활동이 증가하였다. 이는 상황지각의 인권

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과 책임지각의 인권과 연관된 행동의 책임을 자신과 연관시켜 지각하여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NHRCK, 2002)라는 개념이 본 연구의 결과와 공통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토대로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개재하여, 작업을 통한 인권과 작업을 통한 옹호를 작업치료의 도덕적, 윤리적 화두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면대면 설문이 아닌 인터넷 설문을 통한 자료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작업치료사를 대표하는 결과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시행될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다양한 특성표집과 관련된 변인으로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에 대해 작업치료의 실정에 맞춰 델파이 조사 기법을 차용하여 인권감수성, 옹호활동의 문항을 선정하는 방법을 구상하였으나 적절한 수의 델파이 조사 패널의 선정과 연구기간 및 자원의 한정으로 완전한 델파이 조사 기법을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치료사들과 관련 있는 항목들을 선정하여 인권감수성 척도의 단점으로 여겨지던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사회적,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응답을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일부 극복하였다는 점과 작업치료에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이라는 실천적인 개념을 접목하여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작업치료를 위한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올바른 인권의식과 옹호적 행동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 의료전문가 중 인권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직종이 작업치료사임을 알고,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옹호활동 및 인권 옹호자의 역할수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연구자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을 보완하여 요약 수정한 논문임을 밝힌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작업적 관점으로 인권을 대하고 옹호전략을 사용하는 클라이언

트의 옹호자 역할을 하는 작업치료사와 연관이 있는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였다.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 및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론적인 인권교육을 벗어나 옹호활동으로 확장하여 활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를 개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은 상황지각, 책임지각, 결과지각순이었다. 전체 에피소드 점수는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교육 받을 권리, 노인의 행복추구권, 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 사생활권 침해,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라 3~5년차와 6~10년차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은 책임지각, 결과지각, 상황지각 순으로 높게 나타는데 이 중 책임지각 변수가 높을수록 옹호활동이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인 Rest(1986)의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4단계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최종단계에서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나 의지 등이 필요한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에 관련된 성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인 작업치료사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임상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인권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치료사들을 위한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에 관한 논의를 개진하여 향후 시행될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의 실증적, 해석적 연구를 위한 디딤돌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4).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3rd ed.).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8(Suppl. 1), S1-S48. doi:10.5014/ajot.2014.682006
- Bong, S., Lee, H. Y., & Jeon, B. J. (2018).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bioethics among the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6(3), 69-78.
- Cho, H. I. (2003). A study on advocacy strategies and process for the vulnerable clients in the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13(1), 173-194.
- Crawford, E., Aplin, T., & Rodger, S. (2017). Human rights in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A step towards a more occupationally just global societ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64(2), 129-136.
- Dalkey, N. C., Brown, B. B., & Cochran, S. (1969). *The Delphi method: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Delk, M. A. (2002). *Study of the differences in and practice of advocacy among clinical social workers,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and mental health counselo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Florida.
- Gabard, D. L., & Martin, W. M. (2003). *Physical therapy ethics* (1st Ed.). Davis Plus.
- Hong, K. H. (2018).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in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8(3), 49-57.
- Jang, K. Y., Lee, E. J., & Kong, M. J. (2017). Study on human rights susceptibil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5(3), 141-152.
- Jeon, S. Y. (2004). Identification and conceptual definition of advocacy in social work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1), 91-119.
- Kang, J. Y. (2002). *The influence on the action for advocating human-rights by cognitive capability*

- and affective empath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D. J. (2011). *A study on the sensibility of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y activities of the employe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Master's thesis, Wooseok University, Deajeon.
- Kim, M. S. (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n advocacy activities among social workers at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 Koo, S. Y. (2005). *Exploratory study on variables influencing advocacy practice of social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Master's thesis, Seoul woman University, Seoul.
-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2017). 윤리강령. Retrieved from <https://www.kaot.org/start.asp.html>
- Lee, M. H. (2004). 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 for service user in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2), 29-52.
- Lee, S. H., & Bang, Y. S. (2015).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n the job attitude of occupational therapis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3(1), 95-108.
- Lee, S. J. (2017). *A study on the poverty status movement of the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Seosan.
- Lee, S. W. (2013). A Study on developing a model of occupational therapy facil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4), 141-159.
- Moon, S. H. (2017). *A study on the sensibility of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y activities of the employe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Master's thesis, Wooseok University, Deajeon.
- Moon, Y. R. (2002).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2002).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in Korea*. Retrieved from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A%B0%90%EC%88%98%EC%84%B1&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483103.html>
-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28-58.
- Schell, B. A. B., Gillen, G., & Scaffa, M. E. (2014). *Willard & Spackman's occupational therapy* (12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Schneider, R. L., & Lester, L. (2001). *Social work advocacy: A new framework for action*. Wadsworth Thomson Learning.
- Taylor, R. R., & Van Puymbroeck, L. (2013). Therapeutic use of self: Applying the intentional relationship model in group therapy. In J. C. O'Brien & J. W. Solomon (Eds.), *Occupational analysis and group process* (pp. 36-52). St. Louis, MO: Elsevier.
- Victoria, P. S. (2010). A client-centred, occupation-based occupational therapy programme for adults with psychiatric diagnoses.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17, 105-112.

Abstract

A Study on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and the Advocacy Activities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Kim, Ji-Man*, M.Sc., O.T., Hong, Ki-Hoon**, M.Sc., O.T.,
Lee, Chun-Yeop**, Ph.D., O.T., Kim, Hee-Jung***, Ph.D., O.T.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Occupational Therapis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sin University/Professor

Objective : The Human Rights constitute one of the basic pillars of every work where persons are involved, such is the case of the occupational therapy field.

Methods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advocacy activiti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hip and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are examined and presented. Making use of online surveys 116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 The measured average of human right sensitivity is 69.00 ± 17.67 point, being them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ubcategories: to the perception of the situation corresponds 23.25 ± 5.62 points, to the perception of the consequences 22.75 ± 6.54 points and for the perception of the responsibility 23 ± 6.54 points. In all the cases have been taken in account the equal rights, the right to education in disables, the right to pursue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the right of the disables to have personal freedom, the privacy rights and the privacy rights for mental illness people. According to the working area the Human Right sensitiveness is higher in Seoul than in the Gyeongsang province meanwhile the advocacy activities is higher in Seoul and in Gyeonggi province than in Gyeongsang province. Depending of the type of service, general hospitals and rehabilitation/nursing hospitals showed higher human rights sensitivity than other servic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working field, occupational therapy group focused in elderly showed higher Human Right sensitivity than other fields. Professionals belonging groups of clinical experience from 3 to 5 years and from 6 to 10 years showed higher advocacy activities than professionals with more than 11 years of experience. A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ed betwee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advocacy activities. For this situation, the human rights sensitiveness was divided in sub-categories in perception of the situation, perception of the consequences and perception of the responsibility. As showed by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advocacy activities of human would grow up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of the human rights sensitiveness of responsibility perception.

Conclusion : Due to the actual lack of information, the collection and study of basic data is fundamental for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human rights educational programs and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defense of the human rights.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ist, Human Rights,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ctivities